

GM작물 상용화 개발사업 전면 중단

농진청-전북도민행동, 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 마련 협약서 서명

농촌진흥청이 GM(유전자변형) 작물 상용화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1일 GM작물 생산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농진청은 GM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다.

농진청과 반GM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진청

청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GM작물 개발 관련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자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GM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GM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생명에 관한 사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미래 식량 확보를 위해 GM작물을 개발해야 한다는 농진청과 안전이 먼저라는 시민단체 간 갈등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GM작물에 대한 생산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연구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 GM작물 개발 기술이 고

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검사를 위한 연구와 향후 필요에 따라 GM작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이어진다.

대학, 연구소, 기업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상용화도 지속된다.

황규서 농진청 연구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 사례다. 지역사회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쉐비 페스타 고객 사은 프로모션 제공

말리부·트랙스 구입 고객 3천명 대상 최대 5% 할인 제공

쉐보레(Chevrolet)가 브랜드 도입 6년 만에 이룬 내수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9월 한 달간 '쉐비 페스타(Chevy Festa)' 프로모션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쉐비 페스타(Chevy Festa)'는 특정 기간 생산된 제품에 한해 쿠폰 할부 조건에 차종별로 최대 8%의 혜택을 제공하며, 말리부 구입 고객 2천명과 트랙스 고객 1천 명을 대상으로 5% 할인을 통해 각각 최대 160만원 및 130만원의 구입 비용 절감 혜택을 선사한다.

또한, 출시 1년 만에 1천대 판매를 돌파하며 국내 고성능 퍼포먼스 카 시장에 한 획을 그은 수입 스포츠카 카마로SS는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으로 4%의 할인 폭을 적용해 최대 200만원 저렴해진다.

이밖에 임팔라, 울란도, 캡티바 구매 고객에게는 각각 6%, 7%, 8%의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백범수 전무는 "쉐보레 브랜드 국내 도입 이래 100만대 판매는 제품과 브랜드를 믿고 구매한 고객 덕분이며,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9월 한 달간 최고의 구매 혜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군산=장현 기자

카카오뱅크 대출 고객 연령층 "30~40대 가장 많아"

고신용자 비중 90% 달해... 대출액 1조 4090억 돌파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고신용자 비중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

1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출범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간 1조4090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경우 실행된 금액만 포함됐다. 하루에 약 454억 5000만원씩 대출이 나간 셈이다.

금액 기준으로 신용등급 비중을 보면 1~3등급의 고신용자의 비중이 89.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0명 중 9명이 고신용자라는 얘기다. 4~8등급의 중저신용자는 대출 한도 자체가 낮은 탓에 비중이 10.7%에 불과했다.

연령별 비중은 30~40대가 83.5%로 가장 높았다. 20대가 대출받은 비중은 6.2%였다. 이 중 비상금 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 20대는 모두 직장인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측은 전했다. 반대로 소액 마이너스 대출인 비상금 대출의

경우 직장이 없는 20대들도 받아간 셈이다.

카카오뱅크가 실행한 대출 상품 중 금액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49.4%)이었다. 이어 신용대출이 43.6%로 나타났고, 최대 한도가 300만원인 비상금 대출은 6.9%였다.

예적금 등 수신 금액은 1조9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기예적금 비중은 61%로 시중은행 평균치보다 낮았지만, 반대로 입출금 등 보통예적금은 39%로 높게 나타났다.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들이 주로 입출금 계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체크카드 신청자 수는 219만명을 돌파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8.2%로 가장 많았고, 40대(18.9%), 10대(6.1%) 순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은 1.0%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발급된 체크카드 중에서는 '라이온' 캐릭터의 비중이 53.4%로 가장 인기가 좋았다.



카카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고신용자 비중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연령층은 30~40대가 가장 많았다.

카카오뱅크는 "한 달간의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며 "대출 신청 서비스와 고객 상담, 체크카드 배송 지연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5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초기 3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뉴스시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고객 감사 특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은행, 대고객 감사 특관 정기예금 판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고객 감사 특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기예금 특관 한도는 총 1000억원으로 한도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특관예금의 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내 가입 가능하며,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이다.

금리는 시장금리 부정기예금 고시금리에 특관금리 연 0.45%의 혜택을 준다. 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연 0.15%~0.30%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얹어준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가입시점에 (IF 기준 당행 최초 신규고객, 정기적립식 가입고객, 전전월 급여(연금)이체 실적 있는 고객, 전지금융 가입 및 신규고객, 신용카드(개인·기업) 보유 및 신규고객 등으로 각 우대행목별 연 0.05~0.10%를 가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관은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서민 금융 활성화 및 지역 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지역사회와 더불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288-9700

농진청, 감자 국산 자급률 위해 심포지엄 열어

농촌진흥청이 가공원료용 감자의 국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가공원료로 적합한 국산 맞춤형 우량품종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산 원료감자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가공용 원료 감자의 국내 수급 동향 및 국산화를 제고 방안(한영환 부장, 오리은) 가공용 감자의

품종육성 및 신종종 씨감자 확대보급 방안(조지홍 박사, 국립식량과학원) 서해안 간척지를 활용한 원료감자 생산 전량과 안정생산 방안(배희수 박사, 국립식량과학원) 원료감자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개발 현황 및 실용화(김재동 대표, 두부기계통상) 감자 주산지 씨감자 생산·보급 사례(박철형, 김제농업기술센터 김영호, 보성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제=곽노태기자

한국은행 전북본부, 추석 특별자금 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문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도내 금융기관 각 영업점이 오는 9월 4일부터 29일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업체당 2억5000만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 이내에서 1년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지원자금 지

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중소기업(부동산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제외) 중 단기문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로, 금융기관이 취급한 일반문전자금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다.

전북본부는 금융기관이 대출취급 기간 중 취급한 대출실적의 50% 이내에서 배정가능액을 기준으로 비례 배분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연리 0.75%)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